

# 여자축구 조소현 “2차전은 전쟁에 나간다는 생각으로”



여자축구대표팀 베테랑 조소현.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중국과 도쿄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플레이오프(PO) 2차전 원정 경기를 앞둔 한국

1차전 1-2로 패해...동점골 넣은 강채림 “역전 가능하다”

내일 오후 5시 중국과 도쿄올림픽 PO 2차전 원정 경기

여자축구대표팀 베테랑 조소현(토트넘 위민)이 전쟁에 나간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소현은 11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언제까지 중국에 지거나 비길 수 없다. 항상 이기려고 했지만 깨는 게 쉽지 않았다”며 “계속 문만 두드리고 있는데, 좀 더 강한 마인드로 상대를 몰아붙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간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지난 8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치른 중국과의 PO 1차전 홈 경기에서 1-2로 패했다.

오는 13일 오후 5시 수저우 올림픽 센터 스타디움에서 PO 2차전 원정 경기를 앞둔 여자 대표팀은 2골 차 이상 승리 또 3골 이상의 1점 차 승리를 거둬야만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한다.

조소현은 “선수들이 1-2란 스코어에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 1-1까지 좋았는데, 최선을 다하고 1-2란 결과가 나오니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밖에서 볼 때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이번엔 중국이 홈에서 부담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첫 골을 넣는다면 분명 뒤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컨디션 난조로 1차전을 벤치에서 지켜본 조소현은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나서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다. 항상 경기를 뛰는 입장이었는데, 애들을 밖에 내놓은 느낌이었다. 그래도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니 ‘많이 성장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전에는 마냥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뒤에서 언니 역할을 하며 따라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매치 126경기(20득점)를 뒀 조소현에겐 마지막 올림픽 도전이다.

그는 “아직 올림픽을 가보지 못했다. 이전에 최종예선 할 때는 어린 나이에 주장을 했다. 그때는 ‘내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하는 후회를 했다. 이제 경기에 나가면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미련이 안 남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림픽에 나간다면 다시 큰 무대에 서게 된다. 월드컵과는 또 다른 느낌일 것이다. 힘들게 올림픽 티켓을 따낸 인생에 소중한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1차전 홈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했던 강채림(현대제철)도 2차전 뒤집기를 자신했다.

조소현의 도움으로 중국 골망을 갈랐던 그는 “(지)소연 언니가 치고 올 때 돌아서 뛰어가는데 언니가 패스하면서 내 이름을 크게 불렀다. 정말 간절하게 이름을 불렀다 ‘이건 진짜 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뛰었다”며 득점 상황을 설명했다.

올림픽의 중요성을 잘 안다는 강채림은 “(역전승이) 당연히 가능하다. 1차전을 뛰면서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이런 생각이 안 들 텐데, 해 볼 수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중국 수비 공략에 대해서 “생각대로 피지컬적으로 키도 크고 빨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내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뉴스

## KLPGA 투어 시즌 개막전 우승자는 이소미

장하나 2타 차로 제압



2021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개막전인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총상금 7억원)의 주인공은 이소미(SBI저축은행)였다.

이소미는 11일 제주도 서귀포시의 롯데스카이힐 CC제주(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이븐파 72타를 쳤다.

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가 된 이소미는 장하나(비씨카드)의 추격을 2타 차로 따돌리고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지난해 10월 휴엔케어 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컵을 차지한 이소미는 개막전부터 안정적인 감각을 선보이며 시즌 첫 챔피언으로 이름을 올렸다. 통산 2승째. 우승 상금은 1억2600만원이다.

강한 바람에 대다수 선수들이 고전했지만, 이소미는 나흘 간 한 번도 오버파를 기록하지 않는 꾸준한 플레이로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2타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맞이한 이소미는 4번홀 보기로 주춤했지만 6번홀과 7번홀 연속 버디로 기세를 올렸다. 9번홀 파세이브 실패로 전반 9개홀을 이븐파로 마쳤다.

후반 승부는 이소미와 장하나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장하나가 13번홀 버디로 어깨를 나란히 하자, 이소미는 15번홀 버디로 다시 1타차 리드를 잡았다.

승부는 16번홀에서 갈렸다. 파4홀인 장하나가 더블보기를 범한 반면, 이소미는 파세이브에 성공해 3타 차로 앞섰다. 이소미는 17번홀 보기로 2타차 추격을 허용했으나 마지막 18번홀을 잘 막고 승리를 확정했다.

장하는 최종합계 4언더파 284타로 준우승에 만족했다. 정슬기(휴온스)가 중간합계 1언더파 287타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3라운드까지 단독 2위를 달리던 이다연(메디힐)은 버디 2개, 보기 4개, 더블보키 2개로 6오버파에 그쳐 최종합계 2오버파 290타 공동 9위로 미끄러졌다.

3라운드까지 단독 2위를 달리던 이다연(메디힐)은 버디 2개, 보기 4개, 더블보키 2개로 6오버파에 그쳐 최종합계 2오버파 290타 공동 9위로 미끄러졌다.

뉴스

## K리그2 ‘알렉스 극장골’ 전남, 안산 1-0 제압



프로축구 전남 알렉스 (사진 = 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전남 드래곤즈가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알렉스의 극장골을 앞세워 안산 그리너스의 발목을 잡았다.

전남은 11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안산과의 하나원큐 K리그2 2021 6라운드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알렉스의 극적인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4경기 만에 승리를 추가한 전남은 2승(3무1패 승점 9)째를 신고하며 4위로 올라섰다. 선두권 경쟁을 기대했던 안산(승점 8)은 주춤했다.

전남은 0-0 무승부가 유력해 보이던 후반 추가시간 김현욱의 크로스를 알렉스가 결승골로 연결했다.

한편, 이날 경기장에는 K리그 최초 동남아 쿼터로 안산 유니폼을 입은 아스나위를 점검하기 위해 신태웅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님이 찾았다.

## 근대5종 전용태, 1년 만의 월드컵서 개인전 우승

한국 근대5종 간판 전용태(광주광역시청)가 월드컵 개인전에서 우승했다.

전용태는 10일(현지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치러진 2021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2차 대회 남자부 결승전에서 1457점을 획득했다.

전용태는 로베르트 커서(헝가리·1455점)와 일라 플라스크코프(불가리아·1451점)를 따돌렸다.

이로써 전용태는 지난 2018년 5월 헝가리 대회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월드컵 개인전 우승에 성공했다.

대회 입상은 지난해 2월 말 이집트 카이로

월드컵 은메달 이후 1년여 만이다.

도쿄올림픽 메달 획득이 유력한 전용태는 코로나19로 각종 국제대회가 1년간 중단돼 실전 없이 훈련에만 매진해왔다.

그러나 오랜만에 출전한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며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전용태는 국제근대5종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정말 기쁘다. 오랫동안 이 대회에 출전하고 싶었는데, 복귀하게 돼 환상적이다. 올림픽이 기다려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용태는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동메달로 올림픽 티켓을 획득했다. 또 이지훈, 김세희 등이 도쿄올림픽 티켓을 따냈다.



## 김하성 메이저리그 진출 첫 아치...동료들 ‘무관심 세리머니’ 환대

샌디에이고, 트위터에 “김하성 파이팅”

김하성이 메이저리그(MLB) 진출 첫 홈런으로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다.

동료들은 격한 환영으로 축하를 건넸다.

김하성은 1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열린 2021 MLB 텍사스 레인저스전에서 솔로 홈런을 뽑아냈다.

9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하성은 2-3으로 뒤진 5회초 선두타자로 등장, 조던 라일스를 상대로 동점 홈런을 터뜨렸다.

볼카운트 1B-1S에서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는 78.8마일(약 127km)짜리 커브를 정확한

타이밍에 걸어올렸다. 맞는 순간부터 크게 뻗어나간 공은 좌측 폴을 때린 뒤 그라운드 안으로 떨어졌다.

김하성의 홈런포는 데뷔 8경기, 19타수 만이다. MLB 베이스볼 서번트에 따르면 김하성의 홈런 타구 속도는 102.5마일(164.96km)로 나타났다. 비거리리는 388피트(118.26m).

대다수 샌디에이고 동료들은 베이스를 돌고 더그아웃으로 돌아온 김하성에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MLB 첫 홈런을 신고한 선수에게 의도적으로 관심을 주지 않는 이른바 ‘무관심 세리머니’였다. 간판 타자 매니 마차도는 김하성이 자신

을 뺄라라고 몸을 건드리는데도 허공만 응시했다.

마차도를 포함한 동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김하성은 홀로 양손을 펼친 채 뛰어나면서 더그아웃 내부를 지나갔다.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샌디에이고 선수들은 김하성에게 달려가 격한 호응으로 데뷔 첫 홈런으로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앞서 만난만 바라봤던 마차도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샌디에이고는 트위터에 ‘김하성 화이팅’이라는 한글 문구와 함께 그의 활약상을 게재했다. 샌디에이고는 텍사스를 7-4로 꺾고 6승3패를 기록했다.

## ‘빅리그 첫 홈런’ 김하성 “이제 시작, 아직 적응하는 단계”

“팀 이겨서 기분 좋아” 소감 밝혀

“확실히 선발로 나갈때가 편해”

메이저리그(MLB) 데뷔 이후 8경기 만에 첫 홈런을 쏘아올린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기뻐하면서도 “이제 시작”이라며 마음을 다잡았다.

김하성은 1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필드에서 열린 2021 MLB 텍사스 레인저스전에서 솔로 홈런을 신고했다.

9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한 김하성은 2-3으로 뒤진 5회초 선두타자로 등장, 조던 라일스를 상대로 동점 홈런을 터뜨렸다.

그는 2타수 1안타(1홈런) 1타점 2득점으로 활약해 팀의 7-4 역전승에 큰 힘을 보탤다.

경기 후 김하성은 화상 인터뷰에서 “첫 홈런을 축하한다”는 말에 영어로 “생큐”라고 답했다.

김하성은 “처음에 파울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쯤 날아갔을 때 페어가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팀이 이겨서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샌디에이고 동료들은 데뷔 첫 홈런을 때려낸 김하성을 ‘무관심 세리머니’로 축하해줬다. 홈런을 친 뒤 베이스를 돌고 더그아웃으로 돌아온 김하성에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하성은 홀로 양손을 펼친 채 뛰어나면서 더그아웃 내부를 지나갔다. 하지만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샌디에이고 선수들은 김하성에게 달려가 격한 호응으로 데뷔 첫 홈런으로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김하성은 “침묵 세리머니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한국에서도 홈런을 처음 친 선수들에게 이런 세리머니를 많이 한다”며 “내가 더그아웃 끝까지 가면 동료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홈런 상황에 대해 그는 “변화가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좋은 타구가 만들어져서 좋았다”며 “당연히 홈런을 쳐서 기분이 좋지만, 아직 시즌 초반이다. 앞으로 경기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성은 “아직 타석에 계속 나가면서 투수 공에 적응하는 단계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샌디에이고 주전 유격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왼쪽 어깨 탈구 부상으로 선발 출전 기회를 잡게 된 김하성은 “확실히 선발로 나갈때가 편하다”면서도 “타티스 주니어의 부상이 나에게 기회라고 생각할 수 없다. 타티스 주니어는 우리 팀에 없으면 안되는 선수”라고 잘라 말했다.

김하성은 “타티스 주니어가 오기 전까지 팀이 이길 수 있도록 막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가 빨리 부상에서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